



이시노 다카미노사토 공원
이미지 캐릭터
「앤·투·고」



체험 학습 광장



돌로 만든 생활도구를 실제로 만져보아 촉감과 중량감을 직접 느껴보는 코너입니다. 실연스테이지·가라우스·시메 구루마·석공 오두막집 등 네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교통편** 다카마쓰 고토하라전철 시도역 「야쿠리역」 하차. 도보로 약 15분
- 폐관 시간** 오전 9:00~오후 5:00
- 휴관일** 월요일·연말 연시(12월 29일~1월 3일)
월요일이 국경일이면 그 다음날
- 입관료** 일반 200엔 대학생 150엔 초·중·고등학생 무료

다카마쓰시 돌의 민속자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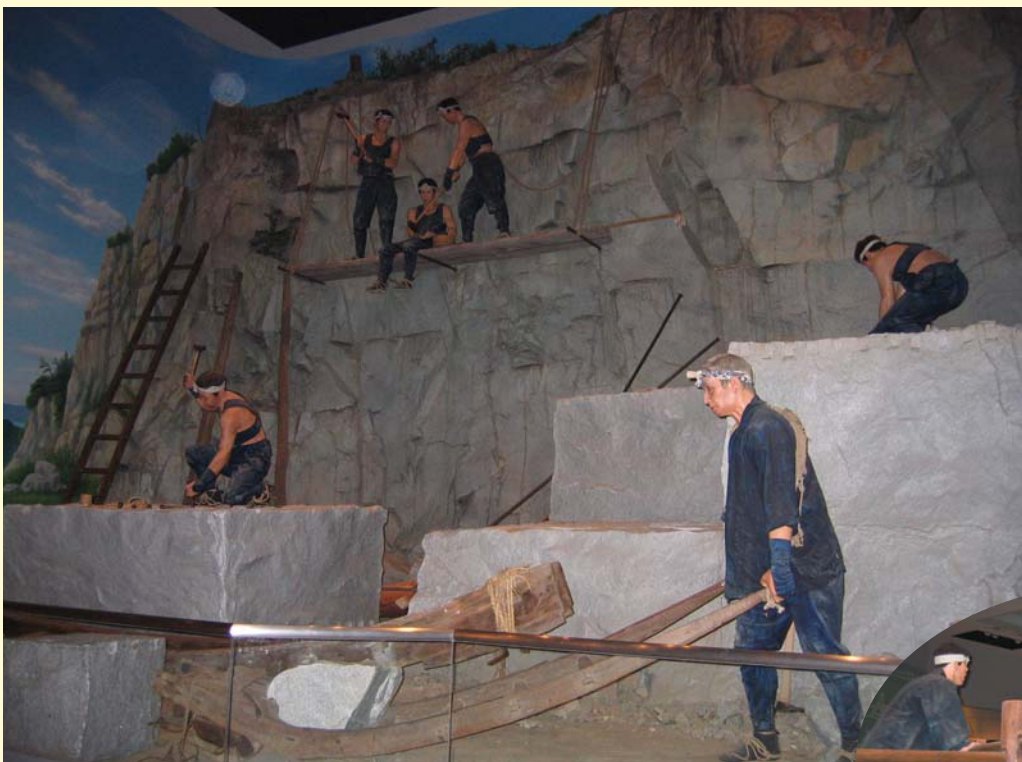
우편번호 761-0121가가와현 다카마쓰시 무레초 무레 1810
TEL 087-845-8484 FAX 087-845-5693
http://www.city.takamatsu.kagawa.jp/kyouiku/bunkabu/rekisi/ishi_mure/index.htm

다카마쓰시 세키쇼노사토 공원

MURE STONE CULTURE PARK

다카마쓰시 돌의 민속자료관





채석 풍경

아지 돌의 채석장입니다. 다이쇼 시대 말기부터 쇼와 시대 초기의 풍경을 재현하였습니다.

돌을 끄는 풍경

옛날에는 '슈라' 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거석을 운반하였습니다. 선인들의 지혜에 감탄하게 되는 풍경입니다.

석공의 작업장

다이쇼 시대 말기부터 쇼와 시대 초기 때의 아지 돌 가공 현장입니다. 당시에는 무례초 각지에서 볼 수 있었던 작업 풍경이었습니다.



석공 도구

석공들이 작업할 때 사용했던 석공 도구들을 실물로 전시하였습니다. 기계화 이전 시대의 꼼꼼한 작업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상설 전시실

고대부터 신앙의 대상으로서 숭배되거나, 건축물 재료로서 사용되어 온 돌입니다. 현재에도 예술·산업·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돌과 사람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 관계의 역사와 내용을 전시 물로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또한, 당시 석공들의 활약을 전하는 옛 시대의 작업 풍경을 디오라마로 재현하는 동시에 1000점이 넘는 석공 도구도 전시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석재 산지로서 뛰어난 가공 기술을 전해 온 무례초 선인들의 지혜와 아이디어, 노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시실



국가 중요문화재의 전시도 가능한 완전밀폐식의 케이스를 갖춘 전시실입니다. 공간을 둘로 나누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AV 라이브러리



돌에 대하여 알 수 있는 영상 전시실입니다. 돌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모니터에서 선택하여 컴퓨터상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강좌 연수실



각종 AV 기기를 갖춘 연수실입니다. 회의와 회합 등 폭넓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용인원은 50명 정도입니다.